

곰의 사육

성 유 석*

1. 곰의개요

곰은 포유류 식육목 곰과에 속하며 지상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로서 몸길이 1~3m, 꼬리길이 7~12cm, 몸무게 27~800kg 이상 되는 동물이다. 곰은 종류에 따라서 체형, 체모의 빛깔이 다르며 또한 습성이 다르지만 힘이세고 넓고 긴머리와 둥근귀 작은눈, 뾰족한 코, 예민한 동작과 후각의 발달은 다른 어느 동물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튼튼하고 억센 발톱은 먹이를 찾는데는 다른 어떠한 육식동물보다 많은 잇점을 갖고 있다.

곰은 두순으로 구분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서식되는 큰곰, 특곰, 북극곰, 늘보곰, 말레이곰 등과 남아메리카산 안경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큰곰과 특곰은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의 밀접한 집단지역은 유럽북부, 아시아 전역, 북아메리카에서 번식하며 북반구에서의 곰은 백수의 왕 사자가 출현치 않는 한 맹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곰은 옛날부터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북유럽인들의 곰의 숭배는 문헌을 통하여 이미 전하여 오고 있다. 2000년전 로마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다량의 곰을 사육하여 많은 다른 종류의 맹수들과 함께 사육하여 왔으며

사냥 및 애완 동물로 사육되어 왔던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큰 곰은 지구상 초기의 곰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북 아프리카에서 유럽지역으로 다시 북 아메리카로 분포하고 유럽에서는 다시 유럽 전역과 섬에까지 분포 서식하게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큰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곰의 크기는 암놈보다 수놈이 더 크며 색깔은 갈색에서 검은 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은회색과 황갈색도 있다. 일반적으로 큰곰은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으며 우리 인간이 다가가면 오히려 도망친다. 그러나 곰이 놀랐을 때에는 다른 동물을 위협하기 위한 방어태세를 취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곰이 유별나게 위험한 때가 있다면 곰이 동면하는 곳인줄 모르고 접근하여 동면을 방해하거나 잠들지 못하게 하였을 때이다. 곰은 땅굴이나 동굴을 겨울의 휴식장소로 곧잘 택하며 또한 좋은 휴식장소를 발견하였다면 그 후 곰은 그 장소를 몇해가 지난 뒤에도 다시 찾아가게 된다.

2. 곰사육의 목적 및 이용

옛날부터 한방에서 명약으로 사용되어온 용담은 제약원료 뿐 아니라 모피 등 다용도의 경제적 이익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가까운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이

*야생동물병원

미 곱농장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더욱 더 인공 사육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반달 무늬를 가진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물지각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보존에 힘쓰지 않은 결과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 보호 측면에서도 더욱 더 보존에 노력을 해야하겠다.

번식용 곰을 계속 사육 번식시키므로 인공번식에 힘과 노력을 한다면 약제의 생산은 물론 모피의 생산 등으로 이중의 기대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사육사와 부대시설

1) 적합한 지형 및 장소 선택

ㄱ) 곰사뿐 아니라 어떠한 동물사도 우리는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위한 햇볕이 잘드는 양지 바른 곳을 택하여야 한다.

ㄴ) 야생의 생태인 자연상태를 맞추기 위하여 사람의 접촉이 적은 곳을 택하여야 한다.

2) 사육 시설

콘크리트 및 철근을 사용하여 곰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야하며 1cm 이상의 철근으로 철장을 만들어 사육안전을 제일원칙으로 한 사육장을 설치해야만 된다.

가) 내부시설 : 환기시설 및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하며 보온시설을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3~4 평 정도).

나) 운동장 시설 : 배수시설을 잘 해주어야 하며 여름철 더위를 위하여 풀장시설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4~5 평 정도).

다) 급수시설 : 자연수를 이용함이 좋으며 곰사 크기에 맞추어 항상 곰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분만실과 보온시설 : 곰은 주로 추운 겨울철인 1~2월에 새끼를 분만하게 되므로 인공번식 기간중 추위를 견디기 위한 특수시설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분만실은 특수시설을 가진 온방시설을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곰의종류 및 번식

| 곰의종류 | 원산지 | 특정 |
|----------------|---------------|--|
| 1. 북극곰 (흰곰) | 북극 | 흰색의 털을 갖고 있으며 더위를 싫어한다. |
| 2. 애조불곰 | 북해도 | 대형종이며 250~750kg 깊색을 띠운다. |
| 3. 유럽갈색곰 | 유럽 | 중형의 곰이며 250~350kg 흑갈색 |
| 4. 말레이곰 | 말레이시아일대 | 소형이며 가축화 되어가고 있다. 웅담으로서의 가치는 적으며 가슴에 V자형을 갖고 있다. |
| 5. 반달곰 | 한국일본 동부아시아 | 중형이며 120~250kg 가슴에 반달모양이 뚜렷하다. |
| 6. 히말리아곰 | 중국, 베마, 태국 | 중형이며 120~250kg |

1) 곰의 임신 및 발정

곰은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임신이 가능하며 임신기간은 180~250일이며, 발정은 6~7월에 시작되고 발정기간은 3~5일간으로 교배시속 시간은 8분~30분 가량된다.

2) 곰의 분만

2~3마리의 새끼를 1~2월 사이에 분만하며 분만예정일 30~40일 전에 짚을 넣어주면 짚을 물고 들어가 입으로 부드럽게 짚을 씹어 등우리를 만들어 추운 겨울철에 보온시설로 새끼의 동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임신한 어미 곰은 분만예정일 30일부터 사료 섭취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다.

| | | |
|----------|----------|-------|
| 내실 3~4평 | 분만실 1~2평 | 내실분만실 |
| 운동장 4~5평 | 격리실 | |
| ----- | ----- | ----- |

5. 곰 사료급여 및 이유 시기

곰은 야생시에는 작은 동물이나, 물고기, 과일, 나무열매, 나무잎, 곤충 등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로서 무엇이든지 잘먹고 질병에 매우 강인한 야생동물이다.

1) 사료의 종류 : 가축의 부산물(소 뱋지의 내장 및 지방) 생선류 일절, 밀, 보리, 배합사료 (기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

※ 참고 : 생선 0.25~0.5kg, 고구마 2~3kg, 감자 0.4~1.6kg, 곡류 0.8~2kg (동물원의 예, 곰 1일 사료량 체중 120~250kg).

2) 곰의 이유 시기 : 새끼를 분만한 후 어미와 새끼의 이유시기는 약 3개월간이며 이유된 후 새끼의 사료는 동물사료를 잘게 만든 후 분유나 우유를 섞어서 처음 양은 적게하다가 서서히 늘여가면서 1개월간 급여하여 그후 어미사료를 급여 사육함이 좋다.

6. 곰의 도살 및 박피

곰의 도살은 겨울철이 좋으나 수요자의 필요한 시기에 마추어 어느 계절 제한없이 도살하고 있다.

도살방법은 마취에 의한 방법이 좋으며 수면상태에서 곰의 혈관을 통해 방혈을 하여 도살시키고 있다. 도살 처리된 곰에서 채취된 웅담은 55°C~60°C에서 열을 가하여 건조하는 것과 전기 냉동하에서 건조하는 것이 있다. 끝으로 곰사육장에서의 일반수칙은

- 1) 항상 동물사의 출입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 2) 항상 동물의 사료 섭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 3) 항상 동물의 배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4) 동물사 주위에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5) 항상 동물의 운동, 거동 상태를 확인도록 함이 제일 좋다.

※ 참고

산림청 곰사 시설기준

1) 곰사육장 시설

가) 면적

- 1) 사육사 : 성수쌍당 4m²이상
- 2) 방사장 : 성수쌍당 10m²이상

나) 사육사

- 1) 벽 : 가) 기초의 깊이 : 1mm이상 콘크리트

나) 벽의 두께 : 15m이상 콘크리트

다) 벽의 높이 : 2.5m이상 콘크리트

2) 천정 : 콘크리트 또는 직경 25mm 이상 철근을 10m간격으로 막는다.

3) 바닥 : 10m 이상의 콘크리트로 약간 경사되게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방사장

- 1) 기초의 깊이 : 1m 이상 콘크리트

2) 울타리 높이 : 3m 이상 콘크리트 또는 직경 25mm 이상 철근을 10m 간격으로 견고하게 시설해야 한다.

3) 천정 : 콘크리트 또는 직경 25m 이상 철근을 10m 간격으로 막도록 한다.

대한수의사회지 합본 (1981~1986)

주문판매

정 가 : 1년분 합본 15,000원

주문처 : 대한수의사회

※ 주문시 년도 명기바람.